



'내 안의 히어로'...숨은 예술 감수성 깨우기

"여러분이 생각하는 '히어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경계 없는 상상과 창작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함께하며 '내 안의 히어로', 숨은 예술 감수성을 만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4 광주문화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가 오는 2일 낮 1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아트날라리는 '안녕! 히어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행사에는 예술시민배움터 지원사업, 장의예술학교 운영사업, 생애전환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현장역량 강화사업 4개 분야 40개 광주문화예술교육단체가 함께한다.

광주문화재단 예술교육축제 '아트날라리'
내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대 개최
40개 단체 참여 46종 프로그램 운영
기후위기 대응 문화예술 체험 다채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경계 없는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단체들이 대거 참여한다. 개막행사 '안녕! 히어로~'를 시작으로 ▲포토존 '내 안에 히어로를 만나요~' ▲미션 '히어로를 찾아라!' ▲2024 광주문화에

술교육 지원사업 선정단체 전시·공연·체험(39종) ▲지구를 위한 먹거리존 ▲유관기관 협력프로그램(5종) ▲폐막행사 '언제나 히어로'와 시민참여 행사 등 46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시민참여형 포토존 '내 안에 히어로를 만나요~'가 눈길을 끈다. 문화예술교육단체 기획자들이 오픈닝 네트워크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축제 당일 시민들이 다양한 히어로의 모습을 사진과 그림으로 표현해 완성되는 프로그램이다. 유아부터 노인까지 내 안의 '히어로'를 찾아 완성하는 과정을 담음으로써 모두가 문화예술을 주체적으로 즐길 수 있다.
올해 축제는 특별히 광주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과도 함께 한다. 지난해 구성된 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협의회와 일환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광주시청차미디어센터, 광주유아종합지원센터가 참여한다.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서구문화원이 다양한 체험과 공연으로 협력 참여해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채운다.

신성한 숲 무등산서 국가안녕 기원 '천제' 올린다

무등산에서 국가와 지역의 안녕·번영을 기원하는 '천제'가 열린다.
무등공부방 아시아인문재단과 전남대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은 오는 2일 오전 10시 무등산 제1수원지 인근에서 '신성한 숲과 울려'를 주제로 천제를 올린다.
열 두 번째를 맞은 이번 천제는 시민들의 참여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천제단에서 무등산 제1수원지 인근 편백숲으로 장소를 옮겨 열린다.
이날 무등산 천제는 입산의식을 시작으로 28수(楮) 봉행, 천제기 모시기, 제수진설, 현주삼배, 정화의식, 여는소리, 고천문 낭독, 현주(獻壽), 현무, 현가, 개천무, 자기 신명물림, 천시, 음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천제에는 몽골 소리기꾼 몽크진을 초청해 전통악기 마두금 연주에 맞춰 희미 창법 공연을 펼친다. 대자연 속 신의 소리를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동시에 들려준다.
무등산 천제는 삼한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전승되던 일제강점기 때 단절됐다. 해방 후 허락된 선생과 오지호 선생 등 지역의 원로들이 복원한 무등공부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무등산 천제가 끝난 후 오후 2시에는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무등공부방 교육장에서 이진경의 '다시 살으라: 오 는 봄' 전시 개막식과 천도제가 열린다. /최명진 기자



무등공부방 아시아인문재단과 전남대 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은 오는 2일 오전 무등산 1수원지 인근 숲에서 '천제'를 올린다. 사진은 지난 해 무등산 천제 모습.

"장소 흔적 담은 문화상품 만나보세요"

ACC재단, 야외전시 '현장 속으로' 연계 상품 출시

"전시 연계 문화상품을 통해 ACC에 얽힌 역사와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지난달 15일 개막한 2024 ACC 야외전시 '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 전시 연계 문화상품 3종을 개발, 출시했다.
'ACC 야외전시'는 시민 누구나 ACC 공간을 오가며 쉽게 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전시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의 흔적을 복원하고 있는 옛 전남도청 본관 등 공사

현장을 전시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ACC 건립 부지에 축적된 기억과 사건을 예술적 시각으로 탐구해 시민들과 공유한다.
재단은 ACC 건립 부지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은 키트북 '어떤 땅(ATIN TING)', 빈티지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리소그래피 염사, 야외전시 관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병거지 모자(버섯 햇) 등 3종을 선보인다. /최명진 기자



同人선생의 易經 강좌

<219>육십사괘해설 : 63. 수화기제(水火既濟) 상

역경의 육십 삼번 째 괘는 수화기제(水火既濟)다. 다해결되고 정리된 형국이나 '기제' (既濟)라 했다. '이미 이뤄졌다'는 의미이고 용괘의 주인 수(水)와 체괘의 주인 화(火)가 합체돼서 하강(下降)하는 감(坎)과 상승(上昇)하는 이(離)가 위 아래에 있어서 양기(兩氣)가 서로 교체돼 만사가 형통하고 완성됐다.

역은 변화를 숭상하는 학문이다. 변화는 음과 양이 섞이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건괘와 곤괘에서는 음양이 섞여 있지 않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변화는 건과 곤이 섞이는 62괘에서 일어난다. 변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오행은 수(水)와 화(火)이다. 기제와 미제는 수와 화로써 이뤄진 착종(錯綜)의 관계에 있는 괘이다.

수화기제(水火既濟)	既濟 亨, 小利貞, 初吉終難	卦象
	淵其首 厲	舟楫濟川之課
	東鄰殺牛, 不如西鄰之禴祭, 實受其福	
	纊有衣袽 終日戒	芙蓉載箱之象
	高宗伐鬼方 三年克之, 小人勿用	陰陽配合之象
	繡裳其華 勿逐, 七日得	西施傾國之意
	現其輪, 淵其尾, 无咎	

기제괘는 마치 태괘(泰卦)와 같은 양상으로, 괘의 육효 모두 음양의 위치가 올바르게 정위(正位)로 돼 이미 일이 이뤄진 상이고 초사, 이오, 삼육효가 음양상응(陰陽相應)하고 있다. 그래서 기제괘를 역경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해야 하지만 기제를 끝내 위치시키지 않고 미제괘를 마지막에 배치했다. 그 이유는 만물은 완전히 이뤄지고 끝난 것은 없기 때문이며, 이로써 다시 64괘가 소장순환(消長巡環)한다는 법칙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괘순(卦順)에 대하여 서괘전에서는 '사물이 지나침이 있는 자는 반드시 지나치지 않도록 가지런히 한다. 그러므로 기제로써 이어 받는다'고 해 '유과물자 필제고 수지 이기제'(有過物者 必濟 故 受之以既濟)라고 한다. 다소 견강부회(牽強附會)적으로 해석한 감이 있다.

기제와 미제를 해석하고자 할 때는 그 상의(象意)를 태괘(泰卦)와 비괘(否卦)에 해당시켜 본다. 즉, 기제는 태의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여 기제의 삼효까지는 일이 이뤄지고 사효부터는 일이 다시 흐트러진다고 보며, 미제는 삼효까지는 일이 이뤄지지 않으나 사효부터는 일이 이루 어지는 방향으로 해석한다.

기제의 상하괘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상중부 감수(坎水)는 오랫동안 기운이 늘어 빠져 있지만, 하중부 이화

"기제 형, 소이정, 초길종난"

<既濟 亨, 小利貞, 初吉終難>

(離火)는 이양(二陽)이 벌어진 재물을 중음(中陰)이 잘 축적하면서 자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잘해 나가고 있어 상충부의 도움이 필요없다. 이를 본 상충부는 이제야 모든 고생과 어려움이 끝났다고 생각해 마음을 놓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려움이 끝나 일이 이뤄진다는 의미에서 '기제' (既濟)라 했다.

상하괘 간의 상을 보면, 배의 노를 저어 큰 내를 건너가는 주楫濟川(舟楫濟川)의 모습이고 이와 연꽃이 감수의 서리를 머금고 있는 부용재상지상(芙蓉載霜之象)이며, 음양이 정위(正位)하여 음양배합지상(陰陽配合之象)이 돼 있고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오나라를 망하게 한 월나라의 서시를 닮아 서시경국지의(西施傾國之意)의 상이다.

수화기제괘(既濟卦)의 괘사(卦辭)는 '기제 형, 소이정, 초길종난'(既濟 亨, 小利貞, 初吉終難)이다. 즉, '일이 다 이뤄진 형국으로 형통하니 이제 정리 정돈하는 작은 일만 남았다. 굳고 바르게 지키는 것이 이롭다. 처음에는 길하나 나중에 어렵다'는 의미이다.

기제괘는 모든 효가 정위(正位)에 있고 초사, 이오, 삼육효가 정응하고 있으며 양효 위에 음효가 올라타(乘) 있어 음효가 주(主)가 돼 있다.

음양이 정위에서 정응하니 이미 이뤄져서 형통하고 더욱 형통하고자 한다면 끝마무리로 정리정돈의 작은 일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단(象)에서 '형소'(亨小)라 했고, 단전(象傳)에서는 이를 '소리형야'(小利亨也)라 했다. 또한 각 효가 정위(正位)에 있고 음양상응(陰陽相應)하니 이를 잘 지켜야 이롭다고 해서 '이정'(利貞)이라 했다. 그러나, 태괘(泰卦)에서처럼 처음에는 길이었던 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지러움이 생기는 것이 자연의 이법(理法)이니 '초길종난'(初吉終難)이라고 말했다.

상전(象傳)에서는 처음에 길이 될 때에 미리 끝에 어지러워질 것을 살펴보고 노력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군자이사환이예방지'(君子以思患而豫防之)라고 가르치고 있다. '초길종난'(初吉終難)이라는 것은 단전에서 기제 중의 기제인 내괘 이화(離火)의 중(中)이유(柔)를 가지고 순(順)을 해서 힘을 함부로 쓰지 않으니까 길을 얻는 것이고, 기제에서 미제로 움직이는 외괘 감수(坎水)는 중(中)이 강(剛)을 얻고 있어 망동(妄動)하면 궁(窮)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물이 불 위에 있는 상

이 기제인데 물이 불 위에 있으면 불은 물을 끓여 음식을 만들고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이는 문명의 비결은 술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술이 깨지거나 녹아서 구멍이 나면 모든 것이 공염불(空念佛)의 환난이 발생하니 군자는 이러한 환난을 미리 생각해 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 상전이 시사(示唆)하는 바이다.

초·이·삼효는 기제 중의 기제이고, 사·오·상효는 기제 중의 미제로 본다. 기제와 미제에서 '제'(濟)는 '이뤄진 다'는 의미지만, '물을 건너는 일'이 있고 그 물을 능숙하게 잘 다루는 '여우'로도 본다. 그래서 여우의 상을 빌려 단효사(象爻辭)를 붙였고 감(坎)을 가지고 보, 여우라고 본다. 그 까닭은 여우는 항상 물구멍에서 살고 있어 물의 성질을 잘 알고 있으며 감(坎)의 물을 건너는 것에 능숙하기 때문이다. 기제와 미제괘의 효괘(互卦)를 보면, 감수로 연결돼 있어 감의 여우가 감의 강을 건너는 상을 취하기도 하고 또는 여우가 줄줄이 연속해서 물을 건너는 상을 취해 해석하기도 한다.

점사(占事)에서 서쪽을 들어 기제괘를 무동(無動)으로 얻으면, 만사가 성취된 시기요 완성된 상태이다.

모처럼 일이 성취됐으니 어떻게 하면 이 성취된 것을 오래 유지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고 관건(關鍵)이다. 초길종난(初吉終難)이라고 하니 좋은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황으로 변해 가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니 변경은 금물이다. 결국 기제는 미제로 가는 노정(路程)일뿐이다.

일상에서도 작은 일은 길을 얻지만, 큰 일은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호조(好調)의 연속성이 없어 좋지 않다. 본괘에서 기제괘를 얻어 다른 괘로 변해가기 보다는, 지괘에서 기제괘를 얻는 것이 좋다. 성취한 것에 만족해 교만하거나 게으름으로 종난(終難)을 대비 준비하지 않거나, 절제됨이 없이 야심을 일으키면 결국 비참한 꼴을 당한다. 바라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이뤄지나 그 이상의 것은 금물(禁物)이고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사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운세·운기(運氣) 등은 처음은 호조라고 보지만 그 호조 속에 작은 하자(瑕疵)를 무시해서는 안되는 때로, 빨리 그 잘못 된 것을 시정하여 평안이 연속되도록 해야 한다. 64괘 중에서 유일하게 육효(六爻)가 정위(正位)를 얻은 괘이므로 이 이상의 일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이 정점(頂點)이므로 이를 유지하는 데 최고의 목적을

취해야 한다. 즉,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신규의 일은 불가하다.

사업, 거래, 교섭 등의 협동사업은 공이 이뤄지지만, 그 이상의 욕심을 내면 내분이 일어 중도좌절(中途挫折)하고 그 이상으로 확장해도 발전 가능성은 없으며, 처음은 순조로와도 나중에는 친목(親幕)을 잃고 이것이 화근(禍根)이 되어 실패한다.

취업은 이뤄지나 현재의 신분에만 만족해야 하고 전업 등은 불가하니 구업(舊業)을 지키는 것이 좋은데 권태(倦怠)가 파탄의 원인이 된다.

혼인은 음양(陰陽)이 정위(正位)에 이르니 남녀 간에 친화(親和)한다고 볼 수 있지만 끝을 견디기 어려운 경향(初吉終難)이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인태는 무사하다고 보지만 산후(産後)의 몸조리가 좋지 않을 수 있다.

기타리는 일은 작은 일은 이뤄지나 큰 일은 이뤄지지 않지만, 이뤄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신(傷身)의 화(禍)를 면하게 한다. 가솔인은 기제가 '이미 물을 건너갔다'는 의미이니 가솔했고 가솔해서 안정을 찾으며 행적(行蹟)은 평범되지 않는다. 분실물 또한 손에 돌아오지 않는다.

병은 대개 난증불치(難症不治)인 것이 많고 표면은 가볍게 보여도 무시하는 것은 금물(禁物)이다. 기제괘가 수화상제(水火相濟)로 정교(情交)의 상이니 정사(情事)에서 불의(不義)를 겪는 일이 많고, 병의 원인이 그와 같은 여자가 몸을 팔거나 해서 일어난 것이 적지 않으며, 또한 그 방면에 절제를 못하여 악화됐다고 보기도 한다.

기제괘의 병점비결(病占秘訣)로서 난치 불치병이 많고 표면에는 가벼운 증상인 것처럼 보여도 엄히 경계해야 한다. 그 까닭은 기제가 '이미 강을 건넜다. 황천, 요단강을 건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는 수화(水火)가 상반(相反)된 반청반우(半晴半雨)라고 보고 음양이 교차하는 폐이니, 장마에 이 괘를 얻으면 개인이라고 하고, 맑은 하늘이 계속되는데 이 괘를 얻으면 비가 온다고 본다. 물가는 처음에는 높고(火) 나중에는 내려간다(水). (동인·도시계획학박사)

[동인선생 강좌 개설 안내(062-654-4272)]

○개설과목(2) : 명리사주학, 역경해설, 매주 토·일 각 4시간, 1년 과정
○7기 초이론부터 최고수준까지 직업전문가 양성, 2024년 11월 초 개강

